

Q. 대학 입학 이후 생활 및 법전원 지원 동기

객관식으로 명확하게 존재하는 정답을 추구하던 고등학교 생활과 달리 수많은 가치관들이 혼재되어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대학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저만의 가치관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질서를 담당하는 법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일정한 파트별로 나뉘어 악보의 규칙에 따라 조화와 통일을 이루어 하모니를 만들어 내 듯, 법조인이 되어 규칙을 수호하면서 사회의 하모니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졌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군 복무 중에 더 심화되었습니다. 군대는 힘의 논리에 의한 불합리와 부조리가 행해지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려면 법이 필요하므로, 법을 배워 사회질서 및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제대 후 사법시험에 도전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학부 수업이 아닌 독학사를 통하여 빠르게 35학점을 충족시켰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1차 시험에 2번 응시 했지만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1차 시험조차 합격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잠시 방황하기도 했지만, 이내 그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꾸어 극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불합격의 원인이 체력의 부족과 잘못된 공부 방법이었음을 절실히 깨달았고, 복학한 이후에는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하였고, 교과서의 단권화와 공부의 분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공부 방식을 체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실제로 학부 성적의 향상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학 이후 매 학기 주 1회의 민법 및 형법 스터디 그룹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법적 지식 뿐 아니라 생활습관 및 공부 방법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해 제 스터디 그룹은 법학 입문자 뿐 아니라 전 학년에 걸쳐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는 법학 지식의 습득도 등한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부의 수업을 통하여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고, 과목의 난이도와 교수님의 평가방식에 상관없이 법조인으로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을 위주로 수강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관련 법적 지식을 습득함은 물론, 법 전공학점을 졸업 기준보다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였고 이 대부분을 A학점 이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저는 이론적 지식습득 뿐 아니라 이를 현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르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는 2017년도 말부터 약 3개월간 법률구조공단에서 국가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을 대리 해주는 동 기관에서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을 약 3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법학 이론이 실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소장 및 증거자료 등을 복사하고 편철하는 일, 법원과 검찰청에 서류·송무 및 열람·등사하는 일을 하면서 실무 지식 또한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도 일하는 틈틈이 읽으면서 지역 내의 각종 사건·사고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2018년도 2학기에 성매매 여성 상담센터에서 사회봉사를 하였고, 성매매에 대하여 법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법조인의 역할을 고민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졸업 후 저는 지방변호사회에서 주관하는 소송실무연수에 참여하여 약 3개월간의 연수를 성실히 마쳤고, 총 10과목의 시험에서 과목별 1등, 통합 1등으로 대표로 상을 수여 받았습니다. 실무과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학습을 통하여 법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법조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으며, 법에 대한 흥미와 관심 그리고 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